

지식 (지혜) 의 제 3 안이 삶의 행복과 평화의 기반입니다 .

노 래: 오늘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네...

옴 산티. 여러분은 노래에서 사람인 우리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대단한 빛 속에 있다고, 즉 깨우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지요! 우리는 달에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우주와 별들까지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단한 계몽과 개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노래 구절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네”라고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연구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달과 별에까지 갈 만큼 용감한데 어떤 의미로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릇 행복과 평화로 가득해야 마땅할 삶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선진화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뿐더러 도리어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이 더 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다른 어딘가의 사물들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다른 곳의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등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삶 속의 행복이나 평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어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암흑 속에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으로 온갖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질환이나 질병들에 대한 치유법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픈 사람들의 수는 계속 점점 더 늘어만 가서 그들에게는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쳐 부르며, “이제는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사람을 소리쳐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소리쳐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줄 것이 무엇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할 때, 거기엔 현인들, 성자들, 위대한 영혼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를 건너편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인간이고 보니, 결국 인간들은 모두 다 어둠 속에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리쳐 신을 부르고 또 “당신은 장님들을 위한 지팡이입니다”라는 노래도 역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눈이 멀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온갖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눈은 가졌지만, 지식의 눈이라고 불리는 눈은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눈 또는 지혜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식의 그 눈은 여기 (이마에)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인들의 그림을 보면 제3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셋 달린 인간들이 어찌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셋 달린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에 묘사되어 온 장식품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인이든 다른 무엇이든 인간은 결코 눈을 세 개 가질 수 없습니다. 신인들도 인간이고 악마들도 인간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됴됨이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변해서 어떤 이에게는 팔이 넷 달리고 어떤 이에게는 눈이 셋 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악하다고 해서 뭔가 남다른 모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간다운 자질이 부족하면 그는 악마라고 불리고, 만일 모든 덕성으로 가득하고 천상의 16도로 완전하며 자질에 있어서 악덕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신인입니다. 하지만 몸의 구성면에는 아무 차이도 있을 수 없고, 다만 그들의 자질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순수하다거나 불순하다고 부르고, 덕성으로 가득하다거나 결함으로 가득하다고 부르고, 고결하다거나 타락했다고 부릅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네 개의 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팔 두 개는 여자의 것이고 두 개는 남자의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순수할 때는 팔이 넷 달리고 2종의 왕관을 쓴 형상이 왕국의 상징으로 제시됩니다. 그러한 왕국이 존재하던 때에는 그 왕국 안의 모든 남녀가 행복했고 그래서 그들은 팔이 넷 달린 형상을 묘사해왔고, 라반의 경우엔 머리가 열 개 달린 모습으로 보여 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상징으로, 머리가 10개 달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덕들을 상징합니다. 불순한 가정이 있을 때는 여자의 다섯 가지 악덕과 남자의 다섯 가지 악덕이 있으므로 그들은 두 가지를 합쳐서 머리를 10개로 묘사해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불순할 때는 세상이 참으로 불행하고, 남녀가 모두 순수할 때 세상은 행복합니다. 순수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서 그들을 구성하는 기질이나 외모 또는 타고나는 아름다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이 셋 달려 있다거나 머리가 열 개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봐라, 이것은 지식의 눈이다”라고 이르십니다.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것은 오직 이 지식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간들은 모두 찾는 일에 지쳤습니다. 더 많이 찾아 헤맬수록 그들의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은 늘어납니다. 보세요, 그들은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더 큰 슬픔을 일으킬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명해낸 폭탄 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란 것이 더 나은 방식으로 쓰였다라면 그들은 많은 것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때에 결별한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각으로 이루어진 일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멸망의 때이며 그래서 지각은 모든 것을 그릇되게 합니다. 그들은 단지 세계 파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멸망의 때에 결별한 지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지각이 무엇과 결별했습니까? 신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신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마야를 사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뭐든 다 마야라고, 자기의 몸까지 마야이며, 이 세상도 마야, 이 부와 소유물들도 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마야인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신인들도 부와 소유물들을 가졌었습니다. 심지어 신인들도 몸을 가졌었고 그들 역시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마야였나요? 아닙니다. 5악은 마야라고 불립니다. 악덕들이 마야이며 마야는 슬픔을 끼칩니다. 부와 소유물들은 슬픔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닙니다. 소유물은 행복해지는 수단인데, 누가 그 소유물들을 불순하게 만들었습니까? 5악 (마야)입니다. 마야의 형태를 취한 악덕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슬픔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산에 슬픔이 있고, 몸에 슬픔이 있고, 마야가 만사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탓에 만사 모든 것에서 슬픔이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자 이젠 마야를 없애라, 그러면 너희는 신인들이 그러했듯이 너희의 몸, 너희의 부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마야에게서 벗어나 구제된다는 것은 몸을 떠나거나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마야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헛것이며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세상은 환상이 아니고, 세계는 영원한데 그것이 거짓되게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진 것은 악덕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계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계는 순수했었고 그 순수한 세계에 신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이 세상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신인들의 세상이 저 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신인이던 때 그 세상은 스와르그, 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천국의 주민들이었고, 즉 그것은 천국의 때였고 우리들의 여러 세대가 천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부라 해도 악덕을 기반으로 삼은

행위로 얻은 것은 슬픔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마야를 끝내야 합니다, 즉 마야를 정복해야 합니다. 몸은 악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불시의 죽음이 계속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디다. 불시의 죽음은 결코 없었는데 그 몸들은 순수성의 힘으로 (악덕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몸들이 악덕으로 만들어지는 탓에 그것에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지금 그 (지고의 영혼) 한 분을 소리쳐 부릅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지식의 제3안을 주고 계시고 우리는 지각으로 그 지식 (이해)을 흡수해야 합니다. 브라민인 우리들은 지식의 제3안을 가졌고 신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슈드라들이었는데, 슈드라란 악덕에 탐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젠 우리가 사악하던 데서 순수성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라민이 되었죠. 세 번째 눈을 가진 것은 브라민들뿐이고, 우리가 신인일 때는 보상을 경험합니다. 신인들에게는 지식의 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라고동, 원반, 첼퇴, 연꽃 등, 그들이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장식품들은 신인들이 아닌, 브라민들에게 속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뼈대인데,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첼퇴는 우리가 5악을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원반은 4 시대의 원반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신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다시 한 번 우리를 드높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이클을 한 바퀴 다 마쳤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자아각성의 원반입니다, 즉 자아는 그 자체를 비전으로 보아왔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낡아지겠느냐고 물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낡아지죠. 뭔가 낡아지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물체와 모든 상황에는 그것 나름의 자연법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며 우리 스스로를 드높여야 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시는데 어째서 우리들이 추락하게 놔두실까요?”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추락하게 놔둔 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드높이려고 그가 어떻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오신 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순한 자들을 정화하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만일 불순한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모든 이를 정화시키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불순해져야 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순수해져야 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순수한 데서 불순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들은 스스로를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오직 그제야 우리가 비로소 칭송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칭송은 그렇게 되는 자들과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한 분에 대한 노래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자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 이렇게 양측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한 분과, 그렇게 되는 자가 동일한 하나의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곧 지고의 영혼이고, 지고의 영혼이 곧 영혼이다.” 이 말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자들과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한 분은 다르니 이런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드높여야 하며,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주십니다. 고결한 성취를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그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지금껏 내내 아무도 우리에게 그 노력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들부터가 모두 사이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드높여주는 한 분이 이제 오셨고 그는 우리가 고결해지려면 해야 할 노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흡수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 전체를 지각에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이클은 그 고유한 때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고결한 과업을 수행하려고 아버지가 지금 임해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완전한 유익을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붓다, 또는 와서 각자의 과업을 이룩한 다른 누구든, 그 과업들이 얼마나 다르든, 그것들은 우리들이 낮아지는 시기의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그래서 우리들은 때도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영혼들이 되돌아가게 되는 때,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동시대와 철시대에 오는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낮아져야 하고, 순수한 데서 불순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한 자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이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와서 불순한 자들을 정화시키는 분은 단 한 분 뿐입니다, 즉 그는 모든 영혼을 해방과 구원으로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것은 그분만의 책임입니다. 어떤 영혼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처음 내려올 때는 그 영혼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그는 낮아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돌아서 그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때에 따라 모든 이가 사이클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높아져야 할 때이며 우리를 높이 데리고 가는 도구인 분은 한 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그 행운을 차지해야 합니다. 앗차.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막대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여러분은 백 배나 천 곱절로 벌고 있습니다. 열의를 갖고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은 그 열의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강요에 의해 뭔가를 행하는 자들, 매우 어려워하며 뭔가를 하는 자들은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세상이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에게 보여줘서 모든 이가 그것에 대해 알게 하려고 기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 기부의 힘은 절반이 상실되기 때문에, 은밀한 기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에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의 보상은 더 큰 반면, 그것을 과시함으로써는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기부하는 데도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토구니, 라조구니, 타모구니 방식으로 행하는 데 관한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행위를 고결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래의 행운을 높게 만들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하는 방법도 역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운도 역시 틀림없이 고귀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앗차.

밥다다와 마마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주 착하고 가치 있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냅니다.

Blessing: 아버지처럼 무한한 태도를 지닌 세계의 시혜자 마스터가 되어라.

“무한한 태도”란 모든 영혼들에 대해 자애로운 태도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시혜자 마스터가 되었다는 의미다. 유익이 너희에게만 있거나, 너희들이 도구가 된 한정된 수의 영혼들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체 모든 이에게 자애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발전, 자기들의 성취, 자기들의 충족감에 대해 충족된 상태로 전진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시혜자들이다. 그렇지만 무한한 태도를 갖고 무한히 봉사하느라 바쁘게 지내는 자들은 아버지처럼 세계 시혜자 마스터라고 불릴 것이다.

Slogan: 칭찬 받을 때나 비방 당할 때, 존경과 모욕에 대해, 유익과 손실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들은 요기 영혼들이라고 불린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